

### 의원 자격으로 첫 의원실 행사 참석한 민주 이재명 의원

# “정부, RE100문제 회피 경향 없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후위기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한 화두인데 RE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생산활동만 한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나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인데 언제나 전환과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고통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은 결국 리더의 역량이자 정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RE100은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이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2월 대선 TV 토론회 당시 이 의원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잘 모른다는 표정으로 “RE100이 뭐냐

고 되물자 화제가 된 바 있는 용어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경제난과 대한민국의 경제난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다”며 “물가·금리·환율의 3고(高) 현상, 또 전쟁으로 인한 각종 경제위기가 우리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변화의 고통 최소화 리더의 역량·정치 의 몫”

“기후위기·기술혁명 현 상황 기회로 활용을”

이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구조적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며 “그 변화의 핵심에는 역시 기술혁명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위치해 있다. 기술혁명에 따른 노동 수요의 감축, 기후위기

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라는 두 가지가 쓰나미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에도 엄청난 파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며 “기후위기와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고를 비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현재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남들보다 반발작 늦게 끌려갈 것이나 아니면 반발작 먼저 가서 견인해 갈 것이나 선도자의 입장에 설 것인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연구회 소속인 우원식 의원과 안이원영 의원 등이 주최해 열렸다. 인선 계안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의원실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

###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오늘부터 5일간  
조례안 등 심의 예정

전북도의회(의장 최찬욱)는 20일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집행부와 의원발의 조례안 건의·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한 이후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고, 도민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소통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의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 등을 심의하고 폐회한다.

최찬욱 의장은 동료 의원에게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지난 4년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과 도정·교육청 공직자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경수 기자

‘잘한다’ 49% · ‘못한다’ 38%

## 尹 부정평가 5%p ↑

### 한국갤럽 여론조사

긍정평가 4%p 하락

부정평가 이유

인사·직무 태도 등 꼽혀

김건희 여사 행보

부정평가에서 추가

/특심 5% △공약실천 5% 등이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성향 진보층(70%), 40대(53%) 등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인사(人事) 21% △직무 태도 11% △대통령 직무실 이진 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6% 등이 꼽혔다.

특히 ‘직무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전주 대비 6%포인트 늘었는데, 한국갤럽은 극장·빵집 방문과 같은 사적 활동보다 민생·안보 등 대통령 직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을 여기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행보(1%)를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이들이 이번 주 새롭게 등장했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30%,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2%, 정의당 9%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두 당의 격차는 13%포인트다. 지방선거 전후를 포함한 최근 6주간 국민의힘은 40%대, 더불어민주당은 30% 내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한 주만에 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5%포인트가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를 묻은 결과 49%가 긍정 평가했고 38%는 부정 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6월1주 53%에서 6월2주 53%로 변동이 없었으나 6월3주 4%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월2주 33%에서 6월3주 38%로 5%포인트가 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3%), 정치적 보수층(78%), 60대 이상(80%) 등에서 두드러졌다.

그 이유를 묻은 결과(488명) △소통 11% △국무안보 8% △결단력/추진력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17일 남원에서 학부모와 퇴직교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전북교육 대전환 간담회를 가졌다.

## “작은학교 문제, 공론화위원회 통해 풀어낼 것”

###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 남원서 전북교육 대전환 간담회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작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풀어낼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산악안전체험관 설립 △학력 지원센터 설립 △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에 대해, 서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남원지역에도 학생 수가 적어 학습활동에 어려움

이 있는 학교가 있는 만큼 적정규모 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퇴직 교원들은 잠시 떠났던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 전북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서 당선인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참례된 전북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주체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설훈 “당대표 나가야겠다… 조만간 정리 발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나타난 전 민주당 대표를 도왔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강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아직 결심은 안 했지만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하여 “당내 계파 싸움이 계속되면 2년 뒤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잘래 나오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싸움을 정리시키고 같이 살자, 같이 가자” 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돼야 총선에서도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당연히 보복 수사이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고발했는데 3년간 묶어놓다가 지난 3월 말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선거 끝나고 이게 뭐냐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의 시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지인 동행 논란으로 촉발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퇴하고(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식 조직 없이 대통령 부인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비선 조직 문제점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 지역소멸 위기 대응·청년정책 모색

### 정읍시장 인수위, 오늘 ‘청년정책’ 토론회

민선 8기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20일 ‘청년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인수위의 청년정책 토론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역 청년 5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예상되는 이번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인수위원들은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정읍시청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으로부터 당면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학수 당선인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물론 평소에도 양질의 청년일자리 제공과 지역 청년들의 정착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왔다.

이 당선인은 “발로만 열거되는 관념적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연봉 지급과 같은 계약화로 증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취업하면 당장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취임 전 개최된 업무보고를 통해 150여건 이상의 과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통해 활발한 인수위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난 13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기획예산실과 성장전략실을 비롯한 각 국실과소별로 열린 시정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정읍시의 보고에 이어 관련 의견을 제시하며 일찬 시정을 주문했다.

또 인수위는 시정보고를 마무리하고 이학수 당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민선 8기의 활기찬 시정을 위한 당선인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23일 인사혁신 토론회를 예정한 데 이어 공모를 통해 진행한 시정구호 선정과 공약,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 많은 업무처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민주 당무위, 전대 앞두고

### 조직강화특별위 설치키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정비와 강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건과 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당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위원장은 김민기 의원, 부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을 선임했고, 위원으로는 우신 김희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신 대변인은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의 건은 추가로 안건이 부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 남원시장직 인수위

### 문화관광 분과 현장방문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 문화관광분과는 지난 16일과 17일 문화관광 관련 사업현장 11개소를 방문해 핵심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16일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허브밸리, 관란루 등 6개 사업을 방문하고, 17일에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 숲길공예관, 남원더움관, 고전소설문화관 등 5곳을 방문하는 등 총 11개 문화관광 시설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문화·예술·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처럼 분과원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 “최경식 당선인의 문화관광 분야 공약이행을 위해 문화관광 핵심 기반시설 방문을 통한 운영상황과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통해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